

# 1월 물가도 미쳤다...광주 체감물가 6.6% ↑ '전국 최고'

### 소비자물가 1년 전보다 5.3% 올라·전남 5.5% ↑ 전기료 29.5% 올라...통계 작성 후 최고 상승률 광주 가공식품 10.5% ↑ ...2009년 후 최대폭 상승

연초부터 광주·전남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석유류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치솟는 데다 연초 식품·외식 가격 인상이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률이 반등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광주는 5.3%, 전남은 5.5% 올랐다. 지난달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은 5.2%로, 광주·전남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5.8%에서 11월

5.0%, 12월 4.9%로 내려갔으나 새해 첫 달 상승 폭을 확대하며 5%대로 올랐다. 전남은 지난해 7월(7.3%)부터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국적으로 6.1% 올랐는데, 광주 상승률(6.6%)은 서울·강원과 함께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 체감물가는 전년보다 6.3% 올랐다. 지난달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물가가 광주 28.5%·전남 27.3% 오르며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

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낸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보면 도시가스요금이 광주 35.7%·전남 34.5% 올랐고, 전기료는 두 지역 모두 29.5% 상승했다. 전기료 상승률이 20%를 넘는 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4·7·10월에 이어 올해 첫 달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된 여파다. 농축수산물 물기도 광주 3.2%·전남 2.5% 오르고, 공업제품 가격은 광주 5.7%·전남 6.1% 상승했다. 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 가격은 다소 상승세가 완화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광주 10.5%·전남 9.8%)과 화장품(광주 9.1%·전남 10.4%)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광주 가공식품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나타낸 건 2009년 4월(10.5%) 이후 13년 9개월 만이다.

가공식품 가운데 식용유 가격은 1년 전보다 40% 대 올랐고, 시리얼(광주 40.7%·전남 28.9%), 커피(광주 20.3%·전남 16.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광주 4.9%·전남 4.6% 내리며 4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경유 가격은 1년 전보다 광주는 15.0%, 전남은 16.4% 높은 상태지만 상승 폭은 점차 좁혀지고 있다. 등유 가격도 오름세가 완화하고 있지만 1월 상승률은 광주 39.3%·전남 37.1%로 여전히 높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 물가 상승 영향을 받아 광주 5.7%·전남 5.8% 올랐다. 지역 외식 물가는 광주 7.7%·전남 7.8% 올랐다. 전남 외식 물가는 5개월 연속 9%대 상승률이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8.3%, 올해 7%대로 내려왔지만, 광주는 전년 상승률(7.2%)보다 확대 폭을 키웠다.

외식할 때 소주 가격이 광주 21.4%·전남 19.2%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맥주 상승률이 광주 17.1%·전남 18.0%로 뒤를 잇고, 생선회(광주 12.2%·전남 6.4%), 라면(광주 10.8%·전남 8.3%), 김밥(광주 7.3%·전남 12.8%) 등 순이었다. 외식을 뺀 개인서비스 부문에서는 대리운전 이용료(광주 17.6%·전남 11.7%), 목욕료(광주 15.2%·전남 13.8%), 세탁료(광주 4.8%·전남 19.8%), 공동주택 관리비(광주 7.1%·전남 3.7%) 등이 올랐다. 이날 한국은행은 물가상향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에도 5%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자료를 내고 "최근 두드러지는 물가 상승 요인 중심으로 면밀하게 대응하는 등 물가 안정 기조의 조속한 안착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소상공인 99% "급등한 난방비 부담된다"

###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실태조사...요금할인·에너지 바우처 편성 등 요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9.0%가 급등한 난방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소상공인 181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사업장 운영에서 난방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99.0%에 달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80.4%였다. 특히 숙박업과 유통업은 난방비 부담이 더욱 컸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숙박업 98.5%, 유통업 90.0%였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

은 85.1%로 나타났다. 96.9%는 난방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고 이어 30~50%(31.3%), 50~70%(10.4%) 등 순이었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 고정비용을 제외한 변동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0%가 46.7%로 가장 많고 30~50%가 26.2%로 뒤를 이었다. 50% 이상도 17.1%였다.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숙박업은 37.4%, 유통업은 40.0%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 부담에도 소상공인

들은 별다른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대응책으로는 난방 시간과 온도 제한이 40.8%로 1위로 꼽혔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응답이 35.8%에 달했다.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답변도 8.1%였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난방비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51.7%)이 절반을 넘었고 이어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 법제화 마련(9.8%) 등 순이었다. 정부는 최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농협 ESG 경영 실천 결의대회.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왼쪽) 임직원 60여 명은 최근 무안군 삼함읍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전남농협 ESG 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송강기 대신 계단을 자주 이용하고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쓰며 친환경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한전, 원전종주국 영국서도 원전수주 노린다

### 정승일 사장, 의회·산업계 접촉

한국전력이 튀르키예에 이어 영국에서도 신규 원전 수주를 노린다. 한전은 정승일 사장이 지난 31일부터 이틀간 영국을 방문해 정부, 의회, 산업계 고위급 인사를 만나 원전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사장은 우선 영국 의회가 후원하고 원자력산업협회(NIA)가 주관하는 '의회 원자력 주간' 행사

에 참석했다. 그랜드 샵스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상·하원의원 100여 명, 정부·원전 산업계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 이 행사는 영국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사장은 현재 성공적으로 건설·운영 중인 한국형 원전(APR1400)의 성과와 영국 원전사업 참여 의지를 전하는 한편 샵스 장관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신규 원전 부지 중 하나인 영국 중부 윌파

지역의 버지니아 크로스비 하원의원과 브라이오니 워싱턴 상원의원, 존 워팅데일 한국담당 무역특사 등과 만나 의회의 협력도 구했다. 윌파 지역 원전사업은 일본 히타치사가 2012년부터 진행하다 영국 정부와 사업 요건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2021년 협회를 결정한 바 있다. 정 사장은 그 밖에도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 원자력산업협회 CEO(최고경영자) 등을 만나 조언을 듣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 사장은 "영국은 최초로 상업용 원자로를 운전한 나라"라며 "원전 종주국으로서의 수출은 상징성이 큰 쾌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 접수

광주은행이 발급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을 이달 한 달 동안 받는다. 광주은행은 오는 28일까지 광주은행 인터넷뱅킹(kjbank.com)과 모바일앱에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여수에 사는 만 19~28세(1995~2004년 출생)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지난 2021년 2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 내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전남 청년들에게 연 최대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공연 관람, 학원 수강, 여행,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을 위해 쓰인다. 전남지역에서 지정된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 가운데 복지포인트(카드)를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대상자, 전남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된다. 단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는 문화누리지원금 11만 원을 제외하고 차액 9만원만 지급된다. 오는 4월 초에 자격 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광주은행 영업점과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원 대상이

었다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유동구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지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전남의 취약한 인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68.88(+19.08)
↑ 코스닥	764.62(+13.66)
↓ 금리(국고채 3년)	3.183(-0.080)
↓ 환율(USD)	1220.30(-11.00)



## 2억 화소 카메라...삼성 갤럭시 S23 공개

### 최고급 모델 울트라 등 3종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니 오토리움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 행사에서 일반 모델인 갤럭시 S23와 고급 모델인 S23+(플러스), 최고급 모델인 울트라 등 3종을 공개했다. 이날 선보인 갤럭시 S23 시리즈는 기존 모델보다 카메라 성능이 향상됐다. 우선 전면에는 1200만 화소의 듀얼 픽셀(Dual Pixel) 카메라가 탑재돼 기존 모델보다 한층 선명하고 깔끔한 화질을 제공한다. 카메라와 피사체 간 거리를 분석하고 피사체와 배경을 정교하게 구분해 야간에도 인물 사진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기능도 탑재됐다. 전문가급 사진 촬영과 편집, 저장이 모두 가능한 '엑스퍼트 로(Expert RAW)' 앱은 파일 해상도가 12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까지 향상됐다. 특히 '천체 사진' 모드를 사용하면 삼각대만으로 밤하늘의 성운, 성단, 은하까지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갤럭시 S23+와 S23은 50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됐고, 울트라에는 기존의 두 배 수준인 2억

개 화소의 이미지 센서와 업그레이드된 조리개가 탑재됐다. 갤럭시 S23+와 S23은 기존 모델과 같이 각각 6.6인치와 6.1인치의 플랫 디스플레이가, 울트라 모델은 6.8인치의 엣지 디스플레이가 장착됐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또 갤럭시의 최신 프로세서인 갤럭시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적용해 업그레이드된 모바일 게이밍 경험도 제공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속도는 41% 향상됐고, 발열 제어 기능은 강화됐다. 배터리 용량도 늘어났다. 또 갤럭시 S23 울트라와 갤럭시 S23+는 45W 충전기로 30분 간 최대 65%까지 충전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시리즈에는 독자적인 칩셋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 볼트'를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공간에 저장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오는 17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순차 출시된다. 국내는 7일부터 13일까지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 갤럭시 S23과 S23+는 각각 115만5000원과 135만3000원부터, 울트라 모델은 159만9400원부터 시작한다. 모두 기존 모델보다 15만원 비싸졌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세일콜

##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고객 안전 최우선"

정회 해양에너지 신임 대표이사

정회 해양에너지 신임 대표이사 정회(58·사진) 대표는 지난 1일 취임하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SK E&S와 (주)한양 등에서 근무했으며, 전북 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경남에너지(주)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는 도시가스 사업과 태양광, 지역난방, 전력 등 에너지 업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 지난 2019년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고 국가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한 공로로 동탑산업 훈장을 받았다. 그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발전, Bio-SRF(열병합발전)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표하는 도시가스 기업인 해양에너지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과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들의 도시가스에 대한 역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계해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모습으로 해양에너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